

반디의 시위*

김완수

반디의 아스라한 시위가 궁금했다
다 켜지 못한 불을 쫓무니에 붙이고
구경꾼도 야경꾼도 없이 시위하는 걸 보고서
짠한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
한여름밤의 이슬 같은 몸짓이라
그보다 뭔가 고결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했다

처음엔 저를 청정으로 내모는 결벽인 줄 알았으나
반디가 제 의식(意識)에서 불면하는 건
서툰 자의가 아니었다
대낮의 쫓소리가 총성같이 울리고
소리의 여백이 산그늘보다 넓을 때
반디는 제가 뿌리내린 숙면에서 깨
의식의 계토로 이주했다

사람의 퇴거 명령이 탈바꿈을 재촉하자
반디는 목소리를 키웠다
세상 이목에서 사라질 줄 알아도
날로 산란(産卵)하는 인적은 버틸 수 없었겠지
야박하게 반디들 간을 내먹던 차운(車胤)*은
일찌감치 그 목소리를 읽었을지 모른다
외면의 우범지대에서

내게 황달 같은 불을 켜 반디

내 밧그레한 시선에 촛농이 떨어지는데
하루살이들의 가열(苛烈)한 시위를 보면서도
손사래로 눈 가릴 수 있을까
이제는 두메 끝 벼랑으로 날아가
촛불을 살리는 반디
반디의 꺼지지 않는 의식이 궁금하다